

정기용
선생과
기적의도서관

나는 건축가 정기용 선생과 2000년 1월부터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왔다. 2002년까지 만 3년 동안 우리는 서울의 생태문화적 변화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인 예로 용산미군기지를 생태문화공간으로, 세종로를 시민문화거리로 만들자는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이전과 함께 이 활동들은 비로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 평택에 350만평의 미군기지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5년 10월 중순에 문화연대의 주최로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사업으로 말미암아 줄지에 헐려 없어질 위기에 놓인 '한양주택'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양주택'은 1996년에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멋진 '생태주거단지'이다. 이런 곳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우리의 귀중한 문화적 자산을 없애는 파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토론회에서 오랜만에 정기용 선생을 만났다.

토론회가 끝나고 선생은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근황을 알려주셨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픈 것이 아니었다.

2005년의 마지막 날 저녁에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던 한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가 선생이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많이 놀랐다. 워낙 몸을 안 돌보고 일을 많이 해서 기가 쇠하신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에서 암세포가 자라서 몸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크게 차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걱정과 아쉬움의 물결이 일었다. 아무튼 암은 무서운 병이니까.

정기용 선생은 '해방동이'로 작년에 환갑을 맞았다. 인생의 한 순환을 매듭 짓게 되는 때에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선생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일상과 자연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선생은 '흙집'에 관한 깊은 관심과 강의 등의 활동으로도 잘 알려졌는데,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전통'이나 '웰빙'에 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일상과 자연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찰과



홍 성 태*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
hongst3@sangji.ac.kr

실천으로 동료 건축가들에게 큰 울림과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문화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정기용 선생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건축을 하나로 묶어서 이끌고 가는 보기 드문 삶을 살아왔으며, 또한 살고 있다. 선생의 큰 매력은 이러한 통합적 삶에서 길러진 깊은 인문적 식견과 통찰을 남다른 유머로 사람들에게 즐겁게 전한다는 데에 있다. 학생들은 그에게서 건축만이 아니라 사회와 인생에 대해서도 배울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선생을 좋아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선생이 암에 걸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니, 한참 늦기는 했어도 치료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기용 선생은 일주일에 사흘씩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연초에 입원치료를 마치고 나온 선생을 찾아가다. 치료에 관해 한참 얘기를 듣고 선생의 글과 작품들을 출판하는 일에 관해 여쭘다. 진행상황을 조금 얘기하다가 문득 반색을 하시며 '기적의도서관'에 관한 글은 홍박사가 정리해 주는 게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셨다. 잘 알다시피 '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정기용 선생도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 특히 '순천 기적의도서관'은 바로 선생의 작품이다. 나도 선생을 만날 때마다 이 작품에 관해 간간히 얘기를 들곤 했다. 그때마다 언제나 선생을 따라 순천에 가서 함께 보고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기적의도서관'은 우선 건축물의 면에서 남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요컨대 '기적의도서관'은 우선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지은 독특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도서관과는 크게 다르다. 기존의 도서관은 낡은 시멘트 상자와 같은 겉모습에 일정한 크기의 책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책상을 갖다 놓은 따분하고 근엄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와 달리 '기적의도서관'은 겉모습부터 기존의 도서관과는 달리 독특하고, 안의 구조와 구성도 대단히 다채롭고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를테면 '기적의도서관'은 단순히 많은 책을 소장하고 읽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넘어서 '지역 문화시설'을 추구한다.

그런데 정기용 선생의 얘기를 듣다가 나는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좀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정기용 선생은 '기적의도서관'을 '요즘 유행하는 가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그 건축적 특징이 아니라 사회적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버넌스(governance)란 1990년대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정치학과 사회학의 용어로서 정부/지자체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협치(協治)'라는 한자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요컨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을 통한 권력의 행사로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가버넌스이다.

'기적의도서관'을 짓게 된 것은 결국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도서관

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정보화의 진척과 함께 그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기적의도서관'은 이런 불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중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기적의도서관'은 우선 그 물리적 형태와 구성으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나아가 이제 도서관의 운영을 혁신하는 과제, 요컨대 양질의 도서를 정기적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서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 문화시설'로서 기능을 확대하는 과제를 이루어야 한다.

'기적의도서관'이 이루어야 하는 과제는 여러 관련된 주체들이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경우에 기적은 노력의 다른 말이다. 정기용 선생이 가버넌스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정부/지자체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기적의도서관'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 기적이 아니라 문화적 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가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건축과 운영뿐만 아니라 결과의 향수라는 점에서도 가버넌스는 중요하다.

정기용 선생이 '기적의도서관'에 깊이 개입하게 된 것은 문화적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이 단순히 훌륭한 건축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공생의 사회적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선생의 삶과 도서관은 여러모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

쫓록 선생이 힘든 치료를 잘 마치고 쾌유해서 오래도록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 주실 수 있기를,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이 전국 곳곳에서 당연한 '지역 문화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쓴 홍성태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저서로는 『생태문화도시 서울을 찾아서』(2005), 『지식사회 비판』(2005),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2004), 『생태사회를 위하여』(2004), 『반미가 왜 문제인가』(2003), 『현실정보사회의 이해』(2002),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2000) 등이 있다. 현재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로 재직중이다.